

#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 둘러싸고 문화계 '술렁'

### 심사후 2주 가까이 공식발표 없어 온갖 억측 떠돌아 내정설 A씨 갑질 의혹 일부 확인...지역 미술계 반발 광주시 "관장 관련 정해진 것 없다...후보 검증 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을 둘러싸고 광주시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추측이 난무하는 등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공모 전부터 신임 광주시립미술관장 내정설이 돌았던 A씨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지역 미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미술계는 A씨의 전임 직장에서 갑질 의혹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A씨의 전임 직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A

씨의 갑질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전임 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를 진행했다. 5명이 지원한 1차 공모가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2차 공모를 시작했고 지난 3일 광주시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광주시립미술관장으로 응모한 14명의 후보자 중 3명의 후보를 확정할 상태다. 하지만 심사가 끝난 지 2주가 가까이 오지만 미

술관장 선임과 관련한 공식 발표가 없어 온갖 억측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주 시가 관장 선임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임명장 수여식 일정은 18일로 확정했다 취소했다는 등의 얘기도 흘러나오는 등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인사담당자는 "시장이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인 3월 3명의 후보 명단을 전달했다"며 "수여식 날짜는 시장님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잡아둔 날짜일 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A씨의 갑질을 일부 확인한 최근 문체부의 조지 관리와 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당시 갑질과 부당인사 등 기관의 내부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착수했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또 다른 조직의 기관장으로

활동할 당시 행사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19년 무혐의 결론이 나기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전시, 국내외 교류·협력, 미술 작품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대관 등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또 G.MAP(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까지 지휘해야 하고, 광주비엔날레 등 굵직한 미술행사들과의 협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출발 단계에서부터 임명반대에 부딪힌 미술관장이 지역 미술계와 호흡하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움직여야 할 학예사 등 미술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격정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내정설'에 따라 곧바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발표가 계속 늦어지자, 일부에서는 시장이 낙점을 고심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광주시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현재까지 신임 미술관장 선정자, 발표 일정이나 임명식 등과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사 위원회를 거쳐 올라는 3명의 후보를 살펴보고 있다"며 "3명 중 선정을 고민하고 있는 인품에 대해서 다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술인 B씨는 "공모 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내정설'이 불거져 결과적으로 좋은 인품의 지원을 막은 책임이 시에 있다"며 "역직로 적임자를 찾기 보다는 재공모를 포함한 긴 안목으로 미술관장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현지시간) 방콕 칼튼호텔에서 태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영록 지사, 태국 방콕서 전남 청정·힐링·문화 자원 알려

### 무안공항 전세기 업무협약 등 역대 최다 1만3000여명 목표

태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도 방콕에서 역대 최다인 현지 관광객 1만3000여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설명회를 열었다. 김 지사가 현지에서 직접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세기는 오는 30일 첫 편이 무안공항에 도착하고, 3월 24일까지 운항을 계속한다. 이후 전세기 추가 운항

도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는 16일 방콕 칼튼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와 언론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어 전남관광의 매력을 소개하고, 태국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협약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한국과 태국 두 나라 간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양해각서 이후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이뤄졌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항공사 및 여행업계가 동남아 최대 관광

시장인 태국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해외 관광업계에 지속해서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정장·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의 미 있는 업무협약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 결성

### 한국엔젤투자협회·엔셀파트너스 등 참여...50억 원 규모

광주시는 16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셀파트너스와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호남·제주권) 결성총회를 열고 지역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는 지난해 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가 추진하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호남·제주권역'으로 선정되면서 한국모태펀드 38억 5000만원, 광주시 11억원, 한국엔젤투자협회 2500만원, 엔셀파트너스 2500만원 등을 출자해 총 5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올해부터 8년간(투자 4년, 회수 4년) 운용되며 주목적 투자대상은 호남·제주지역 엔젤투자를 받은 창업기업과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징검다리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

노파크(062-602-7257), 한국엔젤투자협회 또는 엔셀파트너스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외에도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벤처펀드 등 7개 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또 5000억원 펀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시 주도형 펀드를 계획하고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결성으로 초기창업에 대한 투자와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진행돼 초기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5000억원 펀드 조성을 비롯해 창업생태계를 혁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내년부터 연간 5만불 외화송금 규제 사라진다

### 새외환법 이달 말 공개 예정...연간 5만불 넘을때 사전 증빙 의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화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 신 외환법의 요체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좌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b>합병공고</b> (채권자 이외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우진토건(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식회사 한강종합건설(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2023년 01월 13일 각각 회사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흡수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발령일(1월 17일) 이후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가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흡수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갑" 주식회사 우진토건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636, 3층 사내이사 이종선 "을" 주식회사 한강종합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동로62번길 3-80(중앙동) 대표이사 임종천	<b>분할합병공고</b> (채권자 이외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금담개발(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2023년 01월 16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영업의 일부)과 [공]사원, 등록번호 : 광우-00565호를 분할하여 [을]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며 분할된 부분에 대한 [을]의 자산 및 부채 등 권리와무 일체를 [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들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1월 17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갑" 주식회사 금담개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로73-35, 1층 대표이사 이종호 "을" 주식회사 이음전력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25-7(소촌동) 대표이사 박길운
<b>상속한정승인공고</b> • 피상속인 : 망 서영권(631208-XXXXXX) • 최후주소 : 광양시 중앙수길 24(중동) • 등록기준지 : 전남 광양시 중동 1108번지 피상속인 망 서영권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년단603호로 신청하여 2023년 1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권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17일 • 상속인 : 서재길(900205-XXXXXX) 순천시 대석1길 43, 201호(연향동) • 신고기간 : 2023. 1. 17. ~ 2023. 3.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서재길의 주소	<b>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b> 특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b>光州日報</b>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b>세남</b>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